

광주광역시 마지막 시장 강기정 “시정 단단히 마무리”

5·18헌법수복·통합특별시 준비 등 쟁길 터 자원회수시설·영산강Y벨트 수사 종료 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는 7월1일 이면 역사가 될 ‘광주광역시’의 마지막 시장으로서 시정을 단단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자

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 5·18 정신 헌법 전문수복·통합특별시와 인공지능(AI) 실증도시 준비 등의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복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 왔다”며 “의인 10명 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개헌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6주년 5·18 기념식을 민주광장에서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망월교역에서는 추모식을, 광장에서는 기념식을 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와 관련

“6월이면 별도 공사로 진행되던 백운지하차도 상부구간 개방도 완료되고, 지하철역명까지 확정된다”며 오는 6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준비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최소한의 행정비용 573억원을 다시 특별교부세로 요청했다”며 “5월 중 지정을 끝내야 하는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과정도 잡음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총 38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며 “정부 80%, 지방비 20% 매칭 사업이지만 광주시는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임기중 미래먹거리로 역점을 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사업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AX 실증벨리 조성사업이 적정성

검토 중이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도 정부 및 기업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우치공원 판다 유치, 국비확보 등도 챙겨보겠다”면서 “자원회수시설과 영산강Y벨트는 경찰의 부당·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광주시 발전을 위해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징 내달 17일까지 전국 공모

광주시와 전라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상징체계 마련에 나섰다.

양 시·도는 통합특별시의 정체성을 담은 임시 CI(심벌마크) 디자인을 오는 5월 17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7일부터 28일 간이다.

이번 공모는 통합특별시의 첫 상징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작품은 공식 CI 제정 전까지 행정과 홍보 등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전반에 활용된다.

공모 주제는 통합특별시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심벌마크 디자인이다.

응모작에는 전라도 천년의 역사성과 통합의 의미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균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 등이 반영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1인(팀)당 최대 2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접수는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모 요강과 제출서류는 전남도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상징성과 독창성, 대중성, 심미성, 명료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와 공개검정, 2차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점(250만원), 최우수상 1점(150만원), 우수상 2점(각 100만원), 장려상 5점(각 20만원) 등 총 9점으로, 총상금은 700만원 규모다.

이길용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통합특별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하는 윤호중 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진모지구 주행사장 현장을 방문, 조성공사 추진상황 및 주요시설공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통합 앞두고 시의회 확장공사 중단해야”

박문옥 “절차적 정당성 훼손 우려… 충분한 논의 후 결정을”

박문옥 전남도회의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사진)은 21일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본회의장 시설확장공사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합특별시의회의 본회의 개최를 이유로 사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통합 과정은 선점이나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의, 배려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본회의장 문제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출범 이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의회의 공사 추진 배경에 대해 “통합특별시의회의 소재지와 본회의 개최 장소를 둘러싼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 추진은 공정한 논의 여지를 좁히고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



할 수 있다”며 “전남도회의의 대응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중립 투자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부담은 결국 시·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안 된다”며 “의회의 책임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고, 도민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회의와 광주시의회 간 갈등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 지역은 물론 출범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이 책임 있는 협의·조정 기능을 촉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설렘 가득 ‘G-페스타 광주’ 67일간 대장정

광주시는 도시 전역을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모시키는 ‘지(G)-페스타 광주 2026’ 봄·여름 시즌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7일간 열리는 올해 시즌은 단순히 행사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미식·인문·에너지’라는 3가지 색깔을 더해 관광객들이 광주의 매력에 푹 빠져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플랫폼’을 선보인다.

△취향대로 즐기는 3가지 주제 축제 봄·여름 시즌은 총 12개 축제·행사가 참여하며, ‘미식+피크닉’, ‘인문+산책’, ‘에너지+체험’ 3개 주제로 운영한다. 주제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밀도를 높여 도시 전역을 하나의 유기적인 축제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미식+피크닉’은 ‘봄날, 광주를 맛보다’를 주제로 식도락 여행가들을 위한 맛있는 유혹이 펼쳐진다. 양동전통시장의 정을 나누는 ‘양동통매축제’부터 호남 최대 규모의 ‘광주식품대전’, 전국의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주류관광페스타’까지 광주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6월 28일까지 봄·여름 축제… 미식·인문·에너지 3개 주제

의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된다.

‘인문+산책’은 ‘걷다, 광주를 만나다’를 주제로 광주의 정체성인 인문·민주·평화의 가치를 만나는 시간이다.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비롯해 ‘세계인권도시포럼’, ‘무등산 인문축제’가 인문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댄스 축제인 ‘스트릿컬처페스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하우펀(HOW FUN)’, 영화의 바다 ‘광주독립영화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미식정보부터 관광동선까지…체류형 관광 지원 강화 광주 동명동·무등산권역(동권)과 상무지구·김대중컨벤션센터권역(서권) 등 권역별 맞춤형 관광코스를 눈여

겨 볼만하다. 단순한 관광에서 벗어나 축제장 인근 상권을 이용하고 인근 관광지를 탐방하는 ‘초밀착형 관광 모델’이다.

방문객들이 광주의 미식을 보다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광주시가 ‘광주맛집’으로 선정해 ‘오매광주 광주관광’에 수록된 추천 식당 정보를 정보부디(QR) 코드로 제공하는 등 미식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5·18민주광장,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을 구성해 방문객이 축제와 관광, 소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축제 참여 인증 이벤트, 전시 사전 할인 혜택은 물론 광주송정역 내 지역먹거리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청년 목돈 지원 ‘희망디딤돌 통장’ 750명 모집

도, 매달 10만원 적립에 매칭…3년 최대 750만원 마련

전남도가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규 가입자 750명을 모집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약 75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접수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7



월 초 선정되며, 통장 개설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361명이 만기 혜택을 받아 총 318억원이 지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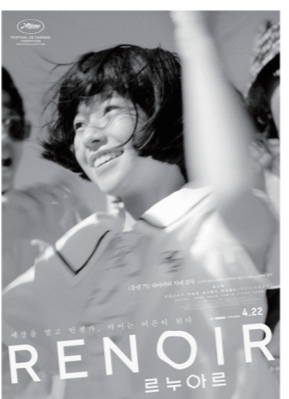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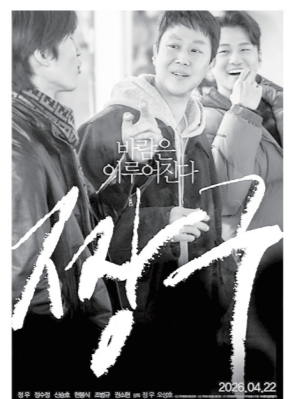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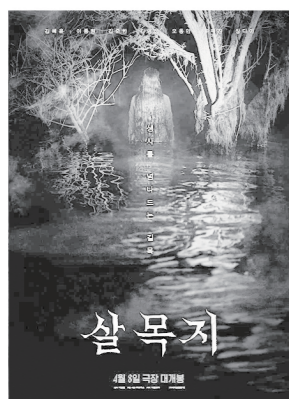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